

‘전방·일신방직 터’ 개발 본궤도 진입



강기정 광주시장이 30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소경용 휴먼스홀딩스 제1차 PFV 대표이사과 전방 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간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협약 체결... 공공기여 규모·분납방법 등 세부내용 담아 공공기여금 5899억 납부...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인허가 절차

‘더현대 광주’로 대표되는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이른바 ‘복합쇼핑몰 3종 세트’ 중 가장 먼저 본궤도에 올라섰다. 광주시와 사업자간 공공기여금 납부, 사업계획 이행 담보 확보 등을 담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인 결정 고시까지 마무리했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민간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 제1차 피에프비(PFV)와 공공기여금 납부, 사업계획 이행 담보 확보 등을 담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인 결정 고시까지 마무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시세 차의 일부를 사업자가 내놓는 공공기여 규모, 납부 방법·시기, 랜드마크 타워 건립 등 사업 계획이

행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이다. 민간사업자는 5899억원의 공공기여 가운데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2899억원)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조성을 마치고, 나머지 현금 3000억원은 착공부터 준공 사이 5년에 걸쳐 광주시에 분납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또 랜드마크 특급 호텔 건립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 증권으로 제출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 착공하기로 했다. 이는 핵심 전략시설인 랜드마크 타워가 어등산 개발 사업처럼 장기 표류하지 않도록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화한 조치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소경용 휴먼스홀딩스 제1차 PFV 대표는 “세계 유수의 개발사업에 손색이 없는 광주의 랜드마크 작품을 남기겠다”며 “원활한 공공기여 이행 등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 사람이 찾는 광주가 되기 위해 큰 관광상품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8일 열린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날 결정 고시로 부지 용도가 공식 변경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도 2025년 상반기 착공, 2027년 말 개점 목표 달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본격화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휴가철 이색 전통 농경문화 체험 어때요

전남농업박물관, 공화분·민화부채 만들기 등 다채

전남농업박물관이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8월 3일부터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이색 공 화분 만들기, 봉송아물 듣기 등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통 농경문화를 이해하고 도시민에게 소중한 추억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 좋잖아요, 농업박물관과 하하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새로 개설한 주말 체험과 상시 체험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말 체험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공 화분 만들기 ▲민화 부채 만들기 ▲천연 버무리 만들기 ▲백중놀이 체험 등 매주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상시 체험은 ▲봉송아물듣기 ▲그림 그리기 ▲스탬프 투어 ▲농경문화 체험 등이다.

공 화분 만들기는 미리 짝 띄운 콩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어 나만의 농작물을 가꾸는 체험이다.

공 화분 만들기는 미리 짝 띄운 콩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어 나만의 농작물을 가꾸는 체험이다. 공 화분 과정과 종류, 특성 등 이론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부채 만들기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더위 탈출 법을 알아보는 체험이다. 다양한 민화 및 그림에 채색해 나만의 부채를 만들고 부채의 종류와 민화 관련 민속 문화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버무리 만들기는 과거 선조들이 모기와 같은 해충을 어떻게 퇴치했는지, 오늘날에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몸에 유해하지 않은 식물성 재료를 이용해 천연 약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이다.

백중놀이는 연간 농작물 재배의 핵심적인 활동을 모두 마치고, 음력 7월 초·중순 무렵에 마을 단위로 날을 정해 하루를 먹고 노는 세시풍속이다. 옛 풍속 재현을 위한 이번 행사에선 국가무형유산 남도돌노래 보존회원을 초청해 참여자와 함께 직접 버논에 들어가 옛 방식 대로 김매기를 하고, 장원을 뺏는 씨름대회도 별칭 계획이다.

또 상시 체험 중 봉송아물 듣기는 8월 말까지 진행된다. 박물관 전경이나 농경문화 관련 그림을 그려 제출하면 선별해 전시할 예정이다. 또 스탬프 투어를 통해 상설전시관 3곳을 관람하고 인증을 받으면 각각 ‘씨앗 새싹 연필’을 나눠줄 계획이다.

김옥경 농업박물관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도민이 참여할 이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도민과 관광객들이 새롭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집회 끝나면 현수막 떼야” 광주시, 정비지침 시행

8월 15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광주시가 도심에 방치되거나 시민 통행을 위협하는 집회 현수막에 대한 강도 높은 정비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30일 “5개 자치구·광주경찰청 등과 협의해 광주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31일 오후 15일만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5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은 적합한 반면 집회 신고자 없이 현수막만 방치된 경우 불법으로 규정했다.

집회 신고자는 장소를 이동하거나 집회 종료 시

현수막을 직접 철거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나 그동안 강제할 수 없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집회현수막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서 신고하면 되고 옥외광고물법 적용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울산·부산·서울시 의회 등이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나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업무 지침을 마련했다”며 “향후 관련법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율성 거리 등 여행 상품 개발...중국 관광객 유치 나선다

광주관광공사, 무안-함저우 취항 기념 맞춤 상품 마련

광주관광공사가 무안-중국 함저우 정기노선 운항에 따라 중국 관광객 유치를 나선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양림동 정율성 거리 등도 관광코스에 포함하기로 했다.

광주관광공사는 30일 “중국 화동 지역 인바운드(외국인 유입 관광) 관광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상품 개발 팸투어를 한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관광상품 개발과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용 홍보영상 촬영도 함께할 방침이다.

광주 여행상품은 영화·드라마 촬영지, 동명동 카페거리, 충장로 케이팝 스타거리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개별 여행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도 주목할 만한 케이팝 문화와 현지인들의 선호도를 함께 반영했다. 특히 한때 이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던 정율성 거리(양림동)를 관광상품으로 포함했다.

광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슈가 있지만 중국인을 겨냥한 순수 관광상품이라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정율성 관련 관광지를 포함했다”

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2년부터 한·중, 노인·청소년을 중심으로 축제·문화·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광저우 관광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광저우·상하이 로드쇼 참가 등 꾸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관광공사는 이번 취항 취항에 대비해 무안 공항을 이용한 광주 관광상품 판매 여행사에 추가 유치 보상을 제공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무안-함저우 정기노선은 오는 9월부터 중국 룽에어(장룽항공)가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글로벌광주방송 사장에 윤도한 전 청와대 수석 선임

광주영어방송재단은 30일 “GGN 글로벌광주방송(옛 광주영어방송) 신임 사장에 윤도한(사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사장은 MBC 기자 출신으로 시사프로 프로그램 ‘뉴스 후’·‘100분 토론’ 등을 진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과 한국 IPTV 방송협회장을 역임했다. 윤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까지 2년이다.

광주영어방송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비상근 사장과 상임본부장 2인 체제를 상근 사장 1인 체제로 통합해 책임 경영하도록 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방송을 송출하는 특성을 살려 명칭도 GFN 광주 영어방송에서 GGN(Global Gwangju Network) 글로벌광주방송으로 변경했다.

오는 8월 6일부터는 프루야구 정규 시즌 KIA타이거즈 광주 홈경기를 한국어와 영어로 생중계한다. 글로벌광주방송은 주파수 광주 98.7MHz·여수 93.7MHz와 유튜브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